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FONDATIONDENTREPRISEHERMES.ORG

OUR GESTURES DEFINE US AND SHOW WHO WE ARE

18 NOV, 2022-29 JAN, 2023

명화
남

2022.11.18
- 2023.11.29

가브리엘

GABRIEL

HWAYEON NAM

ATELIER
HERMÈS

전시장은 차분한 어둠에 잠겨 있다. 짙고 푸른 양탄자와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는 검은 커튼은 자궁처럼 둥근 모양으로 외부와 엄연히 구별되는 은밀한 실내를 구축한다. 최근 몇 년간 우리 모두가 자기만의 방에 윤패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을 건너온 탓일까? 이 방은 언뜻 우리가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침잠했던 경험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인상적인 공간보다 더 은근하게 우리를 사로잡으며 전시 전체를 지배하는 요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다. 전시장에서의 바람은 눈앞에서 무엇을 흔들리게 하는 물리적인 작용이나 피부에 닿는 감각으로 다가오는 대신 오직 소리만으로 존재한다. 너른 대지 위를 희미하게 부유하는 황량한 바람소리에서부터 빠른 속도로 협곡을 빠져나오는 마찰 소리, 무언가에 부딪히며 저항하는 거친 금속성의 소리까지 곁이 다른 바람의 소리들이 언어를 대신하며 이야기를 전한다.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시간도 가늠할 수 없는 바람은 닫힌 줄로만 알았던 방을 열어 무한대의 시공간으로 연결한다.

작가 남화연은 황우지와 다름없는 화성에서 탐사 로버 퍼시비어런스와 탐사 드론 인제뉴어티가 솔(Sol 화성의 하루 단위. 지구 시간으로는 24시간 37분 23초이다)의 실시간으로 전해 준 정보 아카이브에 이끌린다. 그들이 고대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낼 수도 있으리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시간의 역행에 대한 사유를 촉발한 것이다. 미래에 발견될 과거 시제에 대한 이야기. 소멸하는 것들에 대한 애착으로 흠어진 시간들을 모으는데 열정을 보여준 작가에게 화성에서 전해진 바람소리는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전하는 메시지로써 다가온다.

전시는 가브리엘이라는 대천사의 이름을 따라 바람으로 전해진 초자연적인 사건의 도래를 다룬다. 신의 전령으로서 다가올 일을 미리 전하는 그는 전쟁이나 탄생을 목시하는 일을 담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성모 마리아의 수태고지라는 신비로운 메시지를 전달했다. 새로운 세계의 창조 또는 새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이 사건은 시간의 기원인 과거 시점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지만, 미지의 사건을 고지하거나 도래할 일을 두려움과 경이로움으로 예감하는 순간에 주목할 때 사건은 영원히 미래 시제일 수밖에 없다. 사건이 촉발되기 전의 미정의 시간, 분명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작가의 지속적인 관심이 '가브리엘'이란 모티브를 통해 구체화된다.

천사가 다시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희랑에는 드문드문 빛이 묻고,
열주는 가지런할 것이다.
촛불은 꺼지고,
책의 내용은 잊힐 것이다.
너는 두렵지만,

The exhibition hall is immersed in calm darkness. A dark blue carpet and a black curtain leaking dim light create a round, covert interior space like a uterus, starkly separated from the outside. Perhaps because we've all had to confine oneself to one's own room in recent years, the exhibition space at first glance evokes the downtime we all went through in isolation.

However, on closer acquaintance, the element that subtly captivates the audience and dominates the entire exhibition is wind. In the exhibition, wind exists only as a sound, not a physical action that moves anything or a sense of movement that touches your skin. Sounds of wind of diverse textures—including a desolate sound of wind floating over a vast land, a sound of friction rushing rapidly through a canyon, and a sound of rough metal hitting and resisting—replace language to speak to you here. We know wind as the natural movement of air that comes and goes and we don't know where it comes from and where it goes to. But in this exhibition, wind is to open the closed room and carry us to infinite time and space.

The artist Hwayeon Nam has been intrigued by the archive of information that the Mars exploration rover Perseverance and the drone Ingenuity deliver from the wasteland-like planet in real time every Sol (a Martian day, which is approximately 24 hours, 39 minutes, 35 seconds long). Experts' prediction that those technologies might be able to find traces of ancient life has sparked the artist's interest in journeying backwards in time and collecting stories of the past to be discovered in the future. In fact, her work has long shown a passion for scattered histories and disappearing existences. In the sounds of wind delivered from Mars, she finds a message conveying the possibility of new life that traverses time and space.

The exhibition, titled after the archangel Gabriel, explores the advent of supernatural events transmitted by wind. As the messenger of God, Gabriel is in charge of heralding future events, especially wars and births. S/he is best known as the angel who delivered to the Virgin Mary the miraculous news that she would give birth to Jesus. The so-called Annunciation, as an event associated with the creation of a new world or the birth of a new life, can be viewed as an event of the past tense. But as a moment of announcing an unknown event and a moment of forefeeling a coming event with fear and wonder, it is forever in the future tense. In this exhibition, the artist uses the motif of wind

두렵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모든 물질들이 정렬할 것이다.
이것은 모두 오래된 얘기다.
— 가브리엘 스크립트 일부

시적인 은유로 가득 찬 20분 분량의 영상 가브리엘(2022)은 성모 마리아의 옷자락을 연상시키는 깊은 주름의 커튼 내부에 위치한다. 스크린을 에워싸며 도열한 금속의 기둥들은 영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타원형 스타디움의 기둥들과 상응하며 실내를 외부공간으로 변형시킨다. 그 열주들 사이를 지나며 증폭된 바람소리는 신탁의 음성처럼 비밀스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하다. 르네상스 화가들이 상상해낸 수태고지의 순간들은 가브리엘의 도착으로 막 꺼진 촛불의 연기, 천사의 날개, 그의 선물인 백합, 성령의 빛 줄기, 성경책을 읽던 마리아의 손, 바닥에 떨어뜨린 목주, 실내의 커튼 등으로 포착된다. 반면 그 장면들과는 너무 먼 시공간에 위치한 화성의 장면은 태양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은 탐사 드론이 30초대 제자리 호버링에 성공한 역사적인 순간을 탐사 로버 퍼시비어런스(인내심)가 카메라의 눈으로 목격할 모습, 행성 내부의 지진파를 감지하여 그려낸 스펙트로그램 등으로 드러난다. 이들은 시간과 거리를 가로질러 비선형적으로 직조되면서 특별한 서사를 구축하는 대신 이미지들의 느린 소용돌이를 만든다.

작가는 전작들에서 과거의 시간 속에 편린으로 남은 유한한 존재들을 애도하듯, 상상력을 덧댄 자료연구로 희미한 존재들을 입체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가 구축한 예측불허의 세계는 안무와 퍼포먼스라는 실제 움직임이 힘입어 현재와 실재라는 빛나는 순간을 포착한 듯 했다. 그러나 신작 가브리엘에서 현재는 불분명하고 미약한 모습으로 축소된다. 인물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거나 꿈을 꾸듯 가수면 상태에 놓이는데 이들은 어느 시간대에 존재하는지 그 시제조차 불분명하다. 대신 벌레 먹은 잎사귀나 힘겹게 먹이를 옮기는 개미들, 그리고 임계점에 도달한 불안한 계기판이 현실의 시간을 대변한다. 이는 최근에 전개되는 일련의 불확실하고 징후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간이 더 이상 이 세계에서 조정자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과 연관된다. 원시적인 바이러스의 창궐이든, 인간이 남용한 자연의 역습이든, 또는 인간을 능가하는 AI의 출현에 의해서든 인간은 지구에서의 주체적인 통제권을 상실할 것이라는 예감이다. 현재에 대한 생생한 감각과 주체로서의 의지는 사라지고 대신 소멸이 예정된 미래 시제를 응시하는 묵시적 분위기가 작품 전반을 지배한다.

전시는 과거와 미래가 서로를 끌어당기어 '종말 없는 종말'의 시간 루프를 구성한다. 영상 가브리엘의 일부라 해도 어울릴 새로운 사원(2022)은 유토로 빛어 만든 작은 조각군으로 막 출토를 마친 고고학적 발굴 현장을 재연한다. 유물처럼 불완전한 형태로 목면 천 위에 늘어 놓아진 것이다. 작가는 기록에서 사라진 마야문명의 잔해가 최첨단 항공 매핑 기술인 '라이다(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에 의해 과테말라 밀림에서 발견되고 3차원으로 구현되었다는 사실에서 레이저 펄스가 죽은 과거에 생기를 불어넣은 낯선 전령 같다는 상상으로 나아간다.

거울처럼 빛나야 할 백동판이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것처럼 부식된 상태로 드러난 창문-꿈(2022)은 중첩된 시간성을 보이는 드로잉이다. 수태고지 회화에서 실내와 외계를 연결하는 통로로 존재했던 창문은 닫힌 전시장에서도 하나의 건축적 요소처럼 공간을 열어주는 상징적인 기능을 갖는다. 두 시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언제나 남화연의 주요 관심사였는데 르네상스 화가들이 창문을 통해 당대 과학기술의 발명품인 원근법을 실험해 볼 수 있었던 것과 현재의 우리가 컴퓨터의 창을 통해 화성을 비롯한 우주의 메시지를 수신한다는 사실이 흥미롭게 연결된다. 작고 낮은 창문을 꿈의 통로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라 할 것이다.

to give shape to her continued interest in undetermined times in advance of an event – the moments that exist but remain unexposed.

*The angel spoke again
Don't be afraid, Mary
Blots of light will smear the corridors
The colonnades even
Candlelight will go out
As the wbook's words fade
Though afraid
You will not let your fear show
All materials will align themselves
This is all an ancient story
— from the script of Gabriel*

Gabriel (2022), a 20-minute-long video filled with poetic metaphors, is exhibited inside a curtain with deep drapes that is reminiscent of the Virgin Mary's robe. The metal poles lined up around the screen correspond to the oval stadium's pillars that appear repeatedly in the video, thus evoking the interior into an exterior space. Passing through the colonnade, sounds of wind get amplified to feel like the voice of an oracle conveying a secret message. The video captures scenes of the Annunciation imagined and painted by Renaissance painters—such as a candle light extinguishing upon Gabriel's arrival, the angel's wings and gift of a lily, a beam of light as the Holy Spirit, Mary's hand reading the Bible, her rosary dropped on the floor, and interior curtains. The video also contains images of Mars, far away in space and time from the Annunciation, including the historic moment of the Mars drone successfully hovering for about 30 seconds captured by the Perseverance rover, and a spectrogram of seismic waves on the surface of Mars. All these scenes unfold nonlinearly to create a slow vortex of images, instead of building a specific narrative.

In her previous work, concerned with faint traces of the past, Nam combined archive research with artistic imagination to delicately reconstruct their existence, as if mourning their extinction. Through performance and choreography, she let those intangible worlds don vivid moments of reality and presence. In contrast, in Gabriel, the present is reduced to something unclear and feeble. The figures appear almost motionless or dreamy in a trance-like state. The present moment is represented here instead by images of an insect-eaten leaf, ants laboriously moving food, and a gauge reaching the critical point. This appears to be a reflection of the uncertain and symptomatic reality that we experienced recently, and related to the feeling that humans will no longer be the maker of this world. That is the omnipresent foreboding that humans will lose their supremacy on Earth, whether that would mean the outbreak of a virus, the counterattack of nature long abused by humans, or the emergence of AI exceeding humans. What dominates the new work instead is an apocalyptic atmosphere staring calmly at a future destined for extinction.

전시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코다(2022)는 변주와 반복의 방법론으로 시간의 의미를 중층화 하고 작가 고유의 시각적 리듬을 드러낸다. 실내악에서 자주 연주되는 소나타 형식에서 종결부에 해당하는 ‘코다’는 앞서 나온 주제 선율을 반복하고 변주하거나 확장함으로써 곡을 마무리하는데 전시에서는 영상 가브리엘의 핵심적 주제인 바람소리를 추상적인 음악으로 승화시키면서 유령 같은 시간을 만들어낸다. 닫힌 방 안으로 스며든 바람이 공기의 흐름을 바꾸고 순환을 재조직하는 현상으로 천사가 창조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코다에서는 바람과 숲결이 금속 파이프를 관통하면서 다양한 압력과 마찰에 의해 가상의 음악이 되어 시간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음악적 도구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가늘고 긴 금속파이프들은 해체된 악기들과 더불어 과감한 대각선을 구성하면서 관람자들의 동선을 제한하는데 이는 리듬과 선율, 배치와 동선에 있어 남다른 감각을 지닌 작가의 잠재적인 안무 형태라 할 것이다.

징후와 예감이라는 동시대의 감정을 주목한 이번 전시는 연대기적인 시간 질서가 아니라 이음매에서 벗어난 시간을 다룸으로써 이질적인 타자의 도래 가능성을 수용하고 미처 알지 못하는 미래를 두려움 없이 응시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In the exhibition, the past and the future draw each other to form a time loop of ‘the apocalypse without apocalypse.’ A New Temple (2022) is a group of small sculptures made of modeling clay; it could be reenacting an archaeological excavation site or a part of Gabriel video work. Inspired by the news that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a state-of-the-art aerial mapping and surveying technology, discovered ancient Mayan ruins under Guatemalan jungle and make their 3-D representations, Nam expanded her imagination to liken the laser pulses to a strange messenger who breathes life into the deceased past.

Window-Dream (2022) is a drawing that connotes overlapped sense of time. White copper plates expected to shine like mirrors bear the traces of the ages by being corroded. In Renaissance paintings of the Annunciation, the window served as passageway between the interior scene and the outer world. In Nam’s exhibition space too, the window serves a symbolic function as an opening, like an architectural element. While Nam has always been concerned with communication between two distant time periods, it’s interesting to see there are connecting points between how Renaissance painters experimented with the linear perspective technique, then a new invention of contemporary science technology, and how currently we receive messages from Mars and other planets through the computer monitors. This is the reason why we can read the small old window as a pathway to dream.

Coda (2022) is a sound sculpture that marks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the exhibition. Employing methods of variation and repetition to augment the meaning of time, the work also exemplifies Nam’s unique sense of visual rhythm. Coda is a musical term that refers to a passage at the end of a sonata movement, often performed in chamber music, that concludes by repeating, modifying, or extending on an already introduced thematic material. With that in mind, we can see that Nam’s Coda sublimates the sound of wind, the theme of Gabriel, into an abstract music, creating a ghostly time within the exhibition. If the archangel delivered God’s message by making phenomena, for example a wind seeping into the closed room to change the flow of air; in Coda, winds and breaths running through metal pipes become a virtual music by the pressures and frictions, and create a vortex of time. Together with the dismantled musical instruments, the long and slender metal pipes form a bold diagonal line, implicitly guiding the audience’s movement through the space. It is a potential choreographic form produced by the artist with an extraordinary sense of rhythm, composition, and movement.

Exploring contemporary emotions related to symptom and forefeeling, this exhibition addresses a sense of unjointed time as opposed to a chronological order. This is how it embraces the possibility of the advent of other beings whilst gazing without fear into unknown futures.

“이것은 모두 오래된 이야기다”
작가와의 대화

안소연 가브리엘은 무용가 최승희 아카이브 관련 작업을 끝낸 후 새롭게 제안하는 작업입니다. 10년 가까이 몰두했던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소회와 새 작업을 하면서 느낀 감정과 생각이 궁금합니다.

남화연 2020년 아트선재에서 열렸던 개인전 마음의 흐름은 무용가 최승희와 관련한 리서치와 작업을 마감하는 자리였어요. 후련하기도 했고 긴 시간 무언가에 몸서리로 사로잡혔던 제 자신이 스스로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반드시 풀어야 할 일종의 숙제처럼 느껴졌던 작업들이었지만, 그것은 어떤 사명감 같은 것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최승희라는 인물의 작업과 행적을 좇으면서 생긴 우연한 만남들은-이름테면 자이니치 코리언 1,2세대 무용교사들과 조선학교의 학생들-여전히 소중하게 남아있어요. 가브리엘의 구상은 작년부터 천천히 진행했는데, 과거의 자료로부터 촉발된 현재의 사건을 만드는 것에 집중했던 지난 작업의 경향에 비해 미래라는 시제에 대한 생각으로 본격적으로 이행한 것이 작업의 시작점에서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오는 것, 도래할 것에 대한 생각들이요. 그러나 동시에 과거 작업을 역시 아카이브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미래를 다뤘다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새 작업을 구상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계기가 있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2020년 이후 지속된 팬데믹 상황은 매우 중요한 변수였을 거라 짐작합니다.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경험이 달라진 그 이후의 삶은 작업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요.

남 팬데믹을 겪으면서 표준적으로 생각했던 삶의 면면이 사실은 매우 위태롭고 불안정한 지반 위에 가까스로 서있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쩌면 매일매일 예측으로 가득한 온갖 정보들 속에 노출되면서 미래라는 시제에 대한 생각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팬데믹의 경험은 익숙했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으로부터의 절단, 배어짐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 배어짐이 전적으로 싫지만은 않았습니니다.

안 이전 작업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안무와 퍼포먼스가 사라지고 정치화면이 아닐까 싶은 작은 미동만이 남았습니다. 시간을 움직임들 통해 가시화하고자 했던 시간에 대한 관념이 바뀐 것이지요.

남 지금은 아마도 춤도 안무도 아닌 의도를 갖지 않거나 미세한 움직임들, 그리고 실체가 규명되거나 서술되지 않은 어떤 사건과 그것의 전후 시간에 관심이 있어요. 이번 전시 바로 직전에 만들었던 작품인 당신은 오직 두 번 산다에서도 퍼포먼스라는 본격적 사건이 지연된 시간으로써의 리허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 성서에 등장하는 대천사 가브리엘이 작품의 제목이자 전시 전체의 제목으로 등장합니다.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This is all an ancient story”
CONVERSATION WITH THE ARTIST

SOYEON AHN Gabriel is like an announcement of a new beginning, a new work after you finished your ten-year-long project that traces the dancer Seung-hee Choi. I'm curious to hear your feelings and thoughts about wrapping up the longstanding project and beginning a new project.

HWAYEON NAM The solo exhibition Mind Stream held at Art Sonje Center in 2020 was conceived to conclude my research and work on the dancer Seung-hee Choi. It was relieving on one hand and I wonder at myself for having been immersed in something for such a long time. Those works felt like some sort of task that I had to accomplish, but they were not engaged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or anything. In the process I learned tremendously. Especially, those accidental encounters that occurred while tracing Seung-hee Choi's work and activities, for example with the first- and second-generation Zainichi Korean dancer teachers and students of Chosun Hakkyo, remain precious. The idea for Gabriel has been on the way slowly since last year. Compared to my previous project that focused on making visible current events triggered by documents of the past, the new work started as a full-fledged transition to the future tense – with thoughts about what is to come. By the way, one could say that my previous works were also about “futures”—futures transpiring from archives.

AHN There must have been several motives that moved you to conceive this new work, and I guess they'd most likely include the pandemic situation as an important variable. We experience space and the passage of time differently now. How is your changed everyday life reflected in your work?

NAM Undergoing the pandemic, I thought much about how every aspect of life that seemed normal was actually barely standing on a highly precarious and unstable ground. Perhaps it was the flood of information full of predictions that surrounded me every day that made me think about the future times. The pandemic was a cut, a cut-off from the familiar sense of time and space. And I did not dislike the cut.

AHN In your previous works, choreography and performance were important components as you sought to visualize time through movements. In comparison, your new work suggests very small movements that could be still images. Can we say your concept of time has changed?

↳

남 가브리엘은 미카엘, 라파엘과 더불어 로마카톨릭 교회의 대천사 중 한 명이고, 이슬람교에서는 지브릴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두 종교 모두에서 미래에 벌어질 일을 미리 알리는 신의 전령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카톨릭에서는 이러한 연유로 가브리엘이 텔레커뮤니케이션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호자로 간주되기도 하는데요. 전시와 작품 제목을 가브리엘로 사용했지만, 천사 가브리엘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에게 가브리엘은 실체를 알 수 없는 도래할 사건을 고지하고 예감하는 이미지와 소리들의 집합에 가깝습니다.

안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하는 장면은 매우 극적이어서 15-16세기 르네상스 회화의 주요 소재가 되곤 했습니다. 화가가 살던 시대의 시각성 발전을 드러내 듯, 두 인물의 배치와 시점은 그림마다 조금씩 다르게 드러나는데요, 어떤 작품들을 참조했으며, 어떤 특이성을 포착했는지요.

남 말씀하신대로 ‘수태고지’를 다룬 르네상스 회화들은 수없이 많지만 각각의 회화에 반복되어 등장하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백합은 대천사 가브리엘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마리아의 순결함을 뜻하기도 하고, 촛불, 책, 비둘기, 빛 등의 사물, 비인간, 물질이 반복적으로 많은 회화에 등장합니다. 당연히 당대에 발명된 원근법을 적용시킨 회화들이고요. 주로 창이 있는 실내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회화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수태고지’를 다룬 르네상스 회화들을 좋아했습니다. ‘수태고지’에 담긴 내밀한 정조와 마리아의 알 수 없는 표정에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마리아의 표정은 화가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입니다. 일례로 보티첼리의 수태고지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신의 뜻에 순종하거나 상황에 순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만, 제가 관심을 갖는 표정은 로베르 캉팽의 삼면화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표정같은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인상이지만 어떤 때에는 가브리엘의 출현에 의도를 가진 무심함이나 무지함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결단을 준비하는 직전의 표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영상 가브리엘에서는 보티첼리, 로베르 캉팽, 레오나르도 다빈치, 제라르 다비드, 안 반 아이크 등을 포함한 총 9점의 회화를 사물과 공간을 중심으로 근접 촬영하였습니다.

안 영상에는 서로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장면들이 구체적인 서사를 구성하지 않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느슨한 관계 속에서 화성 탐사의 장면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가브리엘과 화성은 어떻게 상호 대응하는지 궁금합니다.

남 현재 화성에는 퍼시비어런스(Perseverance)라는 탐사 로버와 인제뉴어티(Ingenuity)라는 드론이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션의 주목적에는 화성 표면의 암석 샘플 채취나 화성의 고대 환경 조사, 테라포밍의 가능성 여부 타진 등이 있지만, 영상에 사용된 인터뷰 오디오에서도 드러나듯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미션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미션의 성공 여부와는 별개로 그 미션의 수행이 작가인 저에게 불러일으키는 상상과 그 상상으로부터 촉발되는 인간 혹은 생명 그 자체에 대한 존재론적 혼돈과 의심입니다. 퍼시비어런스 로버는 매일 화성의 이미지를 찍어서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들은 나사 홈페이지에 순차적으로 아카이빙 되고 있어요. 훗날 이 이미지들에 이미 어떤 전조가 각인되어 있었음을 어떤 존재는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NAM Maybe I'm now interested in unintentional and subtle movements that are neither dance nor choreography. I'm interested in events that have not been identified or described and the times before and after them. The work I produced just before this exhibition's preparation, You Only Live Twice explores a rehearsal as a delayed time of a predetermined performance event.

AHN Gabriel, the name of an archangel from the Bible, is the title of the exhibition and of one of your new works. Please explain what it means.

NAM Gabriel is one of the three archangels in Roman Catholicism along with Michael and Raphael, and in Islam she/he is known as Jibril, I have learned. In both religions, she/he is the messenger of God who heralds future events. For this reason, in Catholicism Gabriel is sometimes regarded as the guardian of those engaged in telecommunication. I use “Gabriel” as both the exhibition title and a work title, but it doesn’t refer exclusively to the angel Gabriel. To me, it is more like a collection of images and sounds that forefeel and notify unknown coming events.

AHN The story of Gabriel announcing to the Virgin Mary that she would give birth to Jesus, the son of God, is so dramatic that it was a major theme in Renaissance painting in the 15th and 16th centuries. While the two figures’ placements and perspectives vary slightly from a painting to another depending on the period it was painted, which artworks did you particularly refer to and what peculiarities did you capture?

NAM As you point out, there are countless Renaissance paintings depicting the Annunciation, but there are certain symbols that appear repeatedly in those paintings. For example, the lily is a symbol of the archangel Gabriel but it also symbolizes the virginity of Mary. Objects, matters, and non-human images such as candle, book, dove, and light appear repeatedly in those paintings. Of course, they all apply the perspective technique that was invented at the time, and many of them depict indoor scenes with widows.

I have long been fond of Renaissance paintings of the Annunciation. I think I’m especially intrigued by the secretive atmosphere and Mary’s inscrutable expression in them. There are subtle differences in ways different painters have depicted Mary’s expression. For example, Botticelli’s Annunciation quite actively suggests Mary’s obedience to God’s will or to the circumstance. But what interests me is the kind of facial expression that appears in such as Robert Campin’s triptych. Mary in Campin’s painting sometimes appears to be responding to Gabriel’s appearance with intentional indifference or ignorance, and sometimes it appears like an expression on the verge of making a decision. My video work Gabriel contains close-up shots of the objects and spaces depicted in nine Annunciation paintings, including those by Botticelli, Robert Campin, Leonardo da Vinci, Gérard David, Jan van Eyck.

안 전래와 신앙 또는 상상의 영역인 성서의 재현장면에서 과학적 단서를 찾아내는 일은 작가의 2015년작 동방박사의 경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두 작품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남 동방박사의 경배는 지오토가 동방박사의 경배를 재현한 회화에 본인이 육안으로 관찰했었을 1301년의 헬리 혜성을 그려 넣은 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경건하기 그지 없는 장면에 꼬리가 달린 오렌지색의 이질적인 물체가 하늘을 가르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여 지오토라는 이름이 붙은 혜성 탐사선까지 차근차근 연결하며 눈과 눈의 연장으로써의 기술, 회화와 이미지, 기록의 욕망 같은 것들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일면 유사한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작업에서는 이미지들의 파편적인 연결과 단절이 만드는 리듬이 더 두드러지게 된 것 같습니다. 또렷한 서사도 사라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리가 전면에 등장하게 된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 약 20분 길이의 영상은 서사와 언어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시된 단 몇 줄의 문장이 보는 이들의 상상과 유추를 증폭시키는데요, 문장의 말미에 “이것은 모두 오래된 얘기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포하는 바가 궁금합니다.

남 먼 미래에서 영상 속 이미지들을 보고 서술하는 누군가의 시점을 암시하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이미지들을 보며 잠재된 사건을 예감하는 현재의 누군가의 시점일 수도 있겠죠. 의미와 시점을 고정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영상 속 이미지들은 르네상스 회화에서부터 식별이 어려운 화성 탐사 로버의 촬영본 등 다른 시간대의 이미지들이 혼재되어 있고, 꿈인지 기억인지 혹은 꿈의 기억인지의 식별이 불분명합니다. 서사와 언어를 자제한 것은 예감, 직감이라는 것은 언어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 전시장 초입에 코다라는 조각작품이 놓입니다. 해체된 관악기와 음악 용어인 ‘코다’에서 유추해 볼 때, 이 작품은 실내악에서 흔히 연주되던 소나타의 종결부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시작과 종결의 시간 구조를 함께 놓은 것에는 어떤 의도를 담았는지요.

남 코다(Coda)는 이태리어로 ‘꼬리’라는 뜻으로, 보통 소나타의 종결부에서 앞서 소개된 주제부의 요소들을 반복, 변형을 통해 회고하거나 새로운 주제로 확장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먼저 가브리엘을 언급하자면, 영상 내부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불분명한데요. 근접한 거리에 놓인 코다는 전체 전시의 입구이자 출구에서, 시간적으로는 가브리엘을 보기 전후에 반드시 만날 수 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번주와 반복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놓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영상에서는 물론 코다의 사운드에서도 바람 소리가 주를 이룹니다. 관악기의 구조를 관통했음 직한 바람 소리는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가요.

남 평소 바람소리와 관악기 모두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몇 해 전에 만든 작업에서도 작은 드로잉에 바람의 순간적인 움직임을 담은 적이 있어요. 일단 바람은 그 시작과 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흥미로워요. 소리와 속도가 변화무쌍하다는 점, 사물과 신체를 진동시킨다는 점, 기압이나 마찰력과 같은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이라는 점, 파괴력을 잠재하고 있다는 점 등 가만히 생각해보면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관악기는 인간의 숨을 바람으로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아름다운 악기들이죠. 관악기 연주자의 녹음 앨범을 들으면 악기 소리 외에도 호흡

AHN In the video, seemingly unrelated scenes unfold without composing a specific narrative. And out of that loose relation, the scene of Mars exploration stands out significantly. How do Gabriel and Mars interact with each other in your conception?

NAM Currently, Mars is being explored by a rover called Perseverance and a drone called Ingenuity. The mission’s primary objectives are to take samples of the rocks on Mars’ surface, investigate evidence of ancient life, examine a possibility of terraforming, and so on. However, as the interview audio used in Gabriel reveals, a lot of attention seems to be focused on trying to find traces of life on Mars. What interests me the most about the space mission, apart from whether or not it will succeed, is the imagination it evokes in me as an artist, and the ontological questions and doubts about human or existence sparked by the imagination. The Perseverance rover takes and transmits images of Mars every day, and those images are being archived in consecutive order on the NASA website. I wonder, maybe in the future there will be a being who can read what kind of omen was imprinted on those images.

AHN How you trace scientific clues from representations of the Bible, which is a realm of tradition, religious belief, or imagination, reminds me of your work from 2015, Adoration of the Magi. Are there any relations or differences between the two works?

NAM My work on Adoration of the Magi started from the comet in Giotto’s painting of Adoration of the Magi, which he might have depicted after actually seeing Halley’s comet in 1301. In the religious scene by Giotto, an alien, tailed orange object is flying across the sky. Starting from this and all the way through to the comet probe named after Giotto, I traced and linked, navigating issues such as technology as an extension of eyes, painting and image, and desire of archives. A similar approach was used to make Gabriel in a way, but the rhythm created by the fragmentary connection and disconnection among the images is more pronounced. Also, Gabriel doesn’t have a clear narrative, but instead sound comes to the fore.

AHN The 20-minute-long video refrains from narrative and language as much as possible. So the few lines of poetry-like sentence serve to amplify the audience’s imagination and analogy. At the end of the sentence, there’s a phrase that says “This is all an ancient story.” What does this imply?

NAM I wanted to imply the perspective of someone from a distant future describing the images in the video. At the same time, it can also be the perspective of someone in the present time forefeeling a latent event whilst looking at the images. I don’t want to fix a perspective or a meaning. From Renaissance paintings to hard-to-identify Mars rover footage, the video shows disparate images from different times periods and it is unclear whether they are supposed to be a dream, a memory, or a memory of a dream. The work refrains

소리가 중간중간 들립니다. 가브리엘과 코다에서는 화성에서 녹음된 바람 소리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바람 소리, 관악기 연습 소리, 금속파이프가 매질로 기능하며 나는 소리 등 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소리가 뒤섞이는 소용돌이(vortex) 같은 시간의 운동을 상상했어요.

안 전시장은 물리적으로 커튼으로 닫힌 방(내실)을 구현하면서도 상상의 창을 통해 외계로 열려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남 전시 공간은 언제나 전시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의 경우 유리로 된 큰 창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공간의 가장 큰 인상으로 다가왔어요. 특히 전시 공간 쪽의 유리창과 카페 쪽의 유리창을 통해 서로 다른 성격의 공간이 어중간한 거리를 갖고 이어진다는 점이 그랬습니다. 이런 이중의 시선과 거리를 물리적으로 이용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작품과 전시의 내부에서 이런 생각이 구현되게 된 것 같습니다. 가브리엘에서도 창문 이미지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수태고지 회화들을 보면서 각인된 방의 이미지들, 실내악 콘서트 이미지들 같은 것들이 전반적 전시공간 구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안 유토로 만든 작은 소조들은 새로운 사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문명은 한순간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남 작업을 하는 내내 머리에 남아있었던 한 뉴스 기사가 이 작업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율주행차량에도 이용되는 라이다(LIDAR) 기술로 과테말라의 밀림 지역에 갇힌 마야의 도시를 탐색해 내고 3차원 모델로 도시를 구현한 뉴스였습니다. 라이다는 발사한 레이저 펄스의 빛이 물체로부터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과 강도 등을 측정해서 거리 및 위치를 계산하고, 주위를 3차원으로 구현해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계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정글 위 헬리콥터에서 과거의 이미지를 길어내어 보여주는 라이다가 낯선 전령 같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수로, 교량, 성벽, 돌담 등 6만여점의 건축물이 발견되었고, 많게는 10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주거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더군요.

안 이번 전시에서 남화연 작가의 지속적인 관심사인 시간은 물리적인 실체를 띄면서 현재 시점에 되살아나 보다 생생하게 체현되기 보다,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함몰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현존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남 이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현존에 대한 생각은 결국 예정된 소멸에 대한 생각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함몰하는” 존재와 시간에 대한 감각은 최근의 저에게는 비교적 친숙한 감각입니다. 그것은 제가 예민하게 주의를 쏟고 싶은 것들이고요.

from narrative and language, because I think intuition or hunch occurs before language.

AHN Sculptures titled Coda are placed at the entrance of the exhibition space. Inferring from your use of the musical term and the deconstructed wind instrument, the work appears to be something about the concluding passage at the end of a sonata commonly performed in chamber music. What do you intend by placing beginning and end together?

NAM Borrowed from the Italian word for “tail”, coda in music refers to a passage that brings a sonata movement to a conclusion by repeating, modifying, or extending on the already introduced thematic material. Speaking first of Gabriel, the temporal relationship within the video is unclear. Coda is placed in close proximity to Gabriel, and at the entrance which is also the exit of the exhibition; in terms of time, the visitors have no choice but to encounter Coda before or after viewing Gabriel. In terms of repetition and variation, one can place and think of the two together.

AHN The sound of wind dominates in Coda as well as in Gabriel—most likely sounds penetrating through wind instruments. Where does it come from and what is it about?

NAM I've always liked both wind sounds and wind instruments. In a drawing I made a few years ago, I've captured instantaneous movements of wind. Wind is interesting because where it begins and where it ends is unclear. If you think about it, there are actually so many interesting things about wind: its sound and speed are ever-changing, it vibrates objects and bodies, and it is the action of invisible forces such as air pressure and frictional force. Wind instruments are beautiful in that they use human breath as wind to create sound. Listening to a wind instrument player's recording album, you can hear the player's breathing sounds as well as the instrument sounds. In Gabriel and Coda, I used various types of wind sounds, including sounds of wind recorded on Mars, sounds of wind instruments, and sounds made by a metal pipe functioning as a medium. I imagined a vortex-like motion of time where all these sounds are merged.

AHN The exhibition space is physically designed like an inner sanctum, a closed room covered with curtains; but at the same time, it also feels like an imaginary window opened to the outside world.

NAM Every time I make an exhibition, the exhibition spa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creating a concrete image of the exhibition. In the case of Atelier Hermès, the large glass-windowed space left me with the biggest impression. In particular, it was impressive how spaces with different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are connected at an ambiguous distance through the glass windows on the exhibition space side and the glass windows on the café side. I had thoughts to use such a double perspective and distance physically, and this idea was in the end realized into a work and within the exhibition. Gabriel contains a window image. The overall exhibition space

design was influenced by the images of rooms in the numerous Annunciation paintings that I observed as well as the images of chamber music concerts.

AHN The small sculptures made of modeling clay are titled A New Temple. Some civilizations disappear in an instant. What motivated you to conceive of this work?

NAM The trigger was a news article that resided in my mind throughout the work's production process. The news said the LIDAR technology, used in autonomous vehicles, was used to detect ancient Mayan settlements hidden under Guatemalan jungle and to make a 3-D model of the city. LIDAR determines ranges by emitting laser pulses to an object and measuring the time for the reflected light to return, and it can also be used to make 3-D representations of the area. Therefore, it is now widely used in archaeology. I thought LIDAR, which pulls out images of the past from a helicopter over the jungle, is like a stranger messenger. About 60,000 buildings including waterways, bridges, ramparts, and stone walls were discovered, and it is estimated that as many as 10 million people lived there.

AHN Time has been your constant interest. In this exhibition, time feels like sinking into an enormous vortex in which the past and the future meet, rather than taking on a physical reality to be vitalized and represented in the present moment. I'd love to hear your thoughts about existence.

NAM This is a question that requires a long time to answer. I think thoughts about existence eventually lead to thoughts about predestined extinction. In that sense, what you describe as the sense of time and an existence that “sinks into an enormous vortex in which the past and the future meet” are relatively familiar senses to me lately. And I would like to pay sensitive attention to them.



전시 전경
Installation view



가브리엘
단채널 비디오, 6채널 사운드,
20분 4초, 반복 재생
Gabriel
single channel video, 6 channel
sound, 20min 4sec, loop,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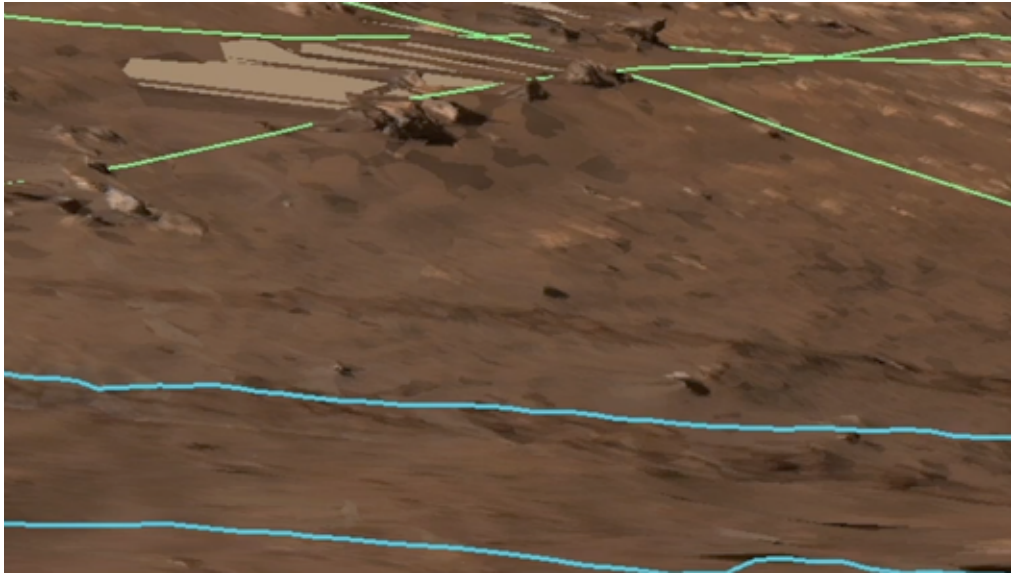
가브리엘(스틸 이미지)
 단채널 비디오, 6채널 사운드, 20분 4초
 Gabriel (still image)
 single channel video, 6 channel
 sound, 20min 4sec, 2022



Merode Altarpiece, Robert Campin, c. 1427–1432,
oil on oak, 64.5 x 117.9 cm, The Cloisters Collection,
courtesy of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메로드 제단화, 로베르 캉팽, c. 1427–1432, 오크에 유화,
64.5x117.9 cm, 클로이스터 컬렉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제공



The Annunciation, Botticelli, c. 1485–1492,
tempera and gold on wood, 19.1 x 31.4 cm, Robert Lehman
Collection, courtesy of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수태고지, 보티첼리, c.1485–1492, 나무에 템페라와 금박,
19.1x31.4 cm, 로버트 레만 컬렉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제공



가브리엘(스틸 이미지)
 단채널 비디오, 6채널 사운드, 20분 4초
 Gabriel (still image)
 single channel video, 6 channel
 sound, 20min 4sec, 2022



전시 전경
Installation view



새로운 사원
 유토, 천, 금박지, 가변크기
 A New Temple
 Clay mixed with oil, cloth, gold foil,
 dimensions variable, 2022



창문-꿈
 백동판에 부식액
 Window-Dream
 Corrosion solutions on nickel,
 39 x 50cm, 2022



코다

알루미늄 파이프, 황동 파이프, 에어블로어, 에어컴프레서, 진동모터, 튜브, 레코더
마우스피스, 플루트, 호른, 트럼펫, 가변크기

Coda

Aluminum pipe, brass pipe, air blower, air compressor, electronic motors, tube,
recorder, mouthpiece, trumpet, flute, horn, dimensions variable, 2022



코다(부분)
Coda (detail)







가브리엘

연출, 편집: 남화연
 촬영: 박홍열
 사운드 디자인과 믹싱: 목소
 출연: 남기윤, 남기현, 남기범, 황수아, 황요셉, 한봄
 촬영팀: 남동현, 이민규, 윤관희
 텍스트: 남화연
 번역: 유지원
 플랏: 이민진
 호른: 김기석, (W. A. 모차르트: 2대의 호른을 위한 12개의 2중주 K.487-1. 알레그로)

인용 이미지와 영상:
 — 〈수태고지〉, 레오나르도 다 빈치, c. 1472, 나무에 유채, 90×220cm, 우피치 컬렉션
 — 〈메로드 제단화〉, 로베르 캉팡, c. 1427-1432, 오크에 유채, 64.5×117.9cm, 클로이스터 컬렉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 〈수태고지〉, 보티첼리, c.1485-1492, 나무에 템페라와 금박, 19.1×31.4cm, 로버트 레만 컬렉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 〈수태고지〉, 제라르 다비드, 1506, 나무에 유채, 79.1×64.1cm, 메리 스틸만 하크니스 유증,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 〈수태고지〉, 주스 반 클레브, c. 1525, 나무에 유채, 86.4×80cm, 프리드셀 컬렉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 〈수태고지〉, 피에르마테오 라우로 데 만프레디 다 아멜리아, c. 1475, 나무에 템페라, 102.4×114.8cm, 이사벨라 스투어트 가드너 미술관
 — 〈수태고지〉, 한스 멤링, c. 1465-1470, 나무에 유채, 186.1×114.9cm, J. 피어폰트 모건 기증,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 〈수태고지〉, 사이먼 베닝, c. 1525-1530, 양피지에 템페라와 금박, 16.8×11.4cm, J. 폴 게티 미술관
 — 〈수태고지〉, 얀 반 아이크, c. 1434/1436, 패널에서 옮겨온 캔버스에 유화, 앤드류 W. 멜론 컬렉션, 국립미술관

— 금주의 로우 이미지(<https://mars.nasa.gov/mars2020/multimedia/images/>), NASA/JPL-Caltech 제공
 — 퍼서비어런스 로버의 Mastcam-Z가 인제뉴어티의 세번째 비행을 포착하다 (<https://mars.nasa.gov/mars2020/multimedia/videos/?v=476>), NASA/JPL-Caltech 제공
 — 퍼서비어런스가 화성에서 운행하는 법 (<https://mars.nasa.gov/mars2020/multimedia/videos/?v=508>), NASA/JPL-Caltech 제공

인용 사운드:
 — 화성의 바람(<https://mars.nasa.gov/mars2020/participate/sounds/?playlist=mars&item=wind-on-mars-01&type=mars>), NASA/JPL-Caltech/LANL/CNES/CNRS/ISAE-Supaéro 제공
 — 퍼서비어런스와 인제뉴어티의 도착 이후 화성의 오래된 생명체를 찾는 NASA(<https://www.cbsnews.com/news/mars-life-ingenuity-helicopter-perseverance-rover-60-minutes-2021-08-01/>), 앤더슨 쿠퍼의 60분, CBS 뉴스, 2021년 8월 1일 방송분

코다

제작: 염철호, 신익균, 장성진
 금속공예: 김재현
 사진 리서치: 황효덕

Gabriel

Editor and Director: Hwayeon Nam
 Cinematography: Park Hong-yeol
 Sound design and mixing: Morceau J. Woo
 Cast: Nam Kiyoon, Nam Kihyun, Nam Kibeom, Lisa Hwang, Joseph Hwang, Han Bom
 Cinematography team: Dong Hyun Nam, Lee Min gyu, Yoon Kwanhee
 Text: Hwayeon Nam
 Translation: Jiwon Yu
 Flute: Lee Min-jin
 Horn: Giseok Kim, W. A. Mozart: 12 Duos For 2 Horns K.487-I. Allegro

Image and Video Reference:
 — *Annunciation*, Leonardo da Vinci, c.1472, oil on wood, 90 × 220 cm, courtesy of The Uffizi Collection
 — *Merode Altarpiece*, Robert Campin, c. 1427-1432, oil on oak, 64.5 × 117.9 cm, The Cloisters Collection, courtesy of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Annunciation*, Botticelli, c. 1485-1492, tempera and gold on wood, 19.1 x 31.4 cm, Robert Lehman Collection, courtesy of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Annunciation*, Gerard David, 1506, oil on wood, 79.1 × 64.1 cm, Bequest of Mary Stillman Harkness, courtesy of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Annunciation*, Joos van Cleve, c. 1525, oil on wood, 86.4 × 80 cm, The Friedsam Collection, courtesy of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Annunciation*, Piermatteo Lauro de'Manfredi da Amelia, c.1475, tempera on wood, 102.4 × 114.8 cm, courtesy of Isabella Steward Gardner Museum
 — *Annunciation*, Hans Memling, c. 1465-1470, oil on wood, 186.1 × 114.9 cm, Gift of J. Pierpont Morgan, courtesy of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설치감독: 장성진
 설치: 염철호, 신익균
 기술감독: 김경호
 영상설치: 만리아트메이커스
 작가 어시스턴트: 이승일

Exhibition Installation Director: Jang Sungjin
 Exhibition Installation: Yeom Chulho, Shin Ikkyun
 Technical Director: Kim Kyoungho
 Media Installation: Manriartmakers
 Artist Assistant: Lee Seungil

— *Annunciation*, Simon Bening, c. 1525-1530, tempera and gold leaf on parchment, 16.8 × 11.4 cm, courtesy of The J. Paul Getty Museum
 — *Annunciation*, Jan van Eyck, c. 1434/1436, oil on canvas transferred from panel, Andrew W. Mellon, courtesy of National Gallery of Art
 — Raw Image of the Week (<https://mars.nasa.gov/mars2020/multimedia/images/>), All Credit: NASA/JPL-Caltech
 — Perseverance Rover's Mastcam-Z Captures Ingenuity's Third Flight (<https://mars.nasa.gov/mars2020/multimedia/videos/?v=476>), All Credit: NASA/JPL-Caltech
 — How Perseverance Drives on Mars (<https://mars.nasa.gov/mars2020/multimedia/videos/?v=508>), All Credit: NASA/JPL-Caltech

Sound reference:
 — Wind on Mars (<https://mars.nasa.gov/mars2020/participate/sounds/?playlist=mars&item=wind-on-mars-01&type=mars>), Credit: NASA/JPL-Caltech/LANL/CNES/CNRS/ISAE-Supaéro
 — Nasa begins search for ancient life on Mars after arrival of Perseverance, Ingenuity spacecrafts (<https://www.cbsnews.com/news/mars-life-ingenuity-helicopter-perseverance-rover-60-minutes-2021-08-01/>), Credit: 60 Minutes by Anderson Cooper, CBS NEWS, August 1, 2021

Coda

Production: Yeom Chulho, Shin Ikkyun, Jang Sungjin
 Metal Crafting: Jae Hyun Kim
 Preparatory research: Hwang Hyo Duck

남화연(1979년생)

- 개인전**
- 2020 마음의 흐름, 아트선재센터, 서울, 한국
- 2019 Abdominal Routes, Kunsthal Aarhus, 오르후스, 덴마크
- 2017 임진가와, 시청각, 서울, 한국
- 2015 시간의 기술, 아르코 미술관, 서울, 한국
- 2009 Grammar of the world, Casco office for art design and theory, 워트레히트, 네덜란드
- 주요 단체전**
- 2022 물결 위 우리, 2022부산비엔날레, 부산, 한국
- 교착상태, YPC SPACE, 서울, 한국
- Frequencies of Tradition, Kadist, 샌프란시스코, 미국
- 2021 송출된 과거, 유산의 극장,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한국
- 간척지, 뉴락, 들개와 새, 정원의 소리로부터,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한국
- 2020 Frequencies of Tradition, 광동타임스뮤지엄, 광저우, 중국
- The Imagination of Time, Yebisu International Festival for Art & Alternative Visions, 도쿄사진미술관, 도쿄, 일본
- 개를 위한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 Performance/ Documentation/ Presentation, Lunds Konsthall, 룬드, 스웨덴
- 2019 시간 밖의 기록자들,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한국
- History Has Failed us, but No Matter, 베니스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베니스, 이탈리아
- 2018 #예술#공유지#백남준,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한국
- 소장품 특별전: 동시적 순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 2017 역사를 몸으로 쓰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 아이러니 & 아이디얼리즘, 경기도미술관, 안산, 한국
- 여덟 작업, 작가 소장, 시청각, 서울, 한국
- 네오지오그래피, Centre d'art Neuchâtel, 누사텔, 스위스
- 2016 유명한 무명, 국제갤러리, 서울, 한국
- 2015 All the World's future, 베니스비엔날레, 베니스, 이탈리아
- 리듬풍경, 경기도 미술관, 안산, 한국
- 2014 결정적 순간들: 공간 사랑, 아카이브, 퍼포먼스, 아르코 아카이브, 서울, 한국
- Inventing Temperature, 영국 한국 문화원, 런던, 영국
- 2013 No Mountain High Enough, 시청각, 서울, 한국
- 기울어진 각운동, 국제 갤러리, 서울, 한국
- Memorial Park, Nouvelle Vague, 팔레 드 도쿄, 파리, 프랑스
- 퍼포먼스**
- 2018 궤도 연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 2013 가변 크기, 송원 아트 센터, 페스티벌 봄, 서울, 한국
- 2012 이태리의 정원, 백성희 장민호 극장, 페스티벌 봄, 서울, 한국
- 2010 Operational Play, 아르코 소극장, 페스티벌 봄, 서울, 한국

HWAYEON NAM (b.1979)

- SOLO EXHIBITIONS**
- 2020 Mind Stream, Art Sonje Center, Seoul, Korea
- 2019 Abdominal Routes, Kunsthal Aarhus, Aarhus, Denmark
- 2017 Imjingawa, Audio Visual Pavilion, Seoul, Korea
- 2015 Time Mechanics, Arko Art Center, Seoul, Korea
- 2009 Grammar of the world, Casco office for art design and theory, Utrecht, Netherlands
-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22 We, on the Rising Wave, Busan Biennale 2022, Busan, Korea
- DEAD END: Archival Journeys, YPC SPACE, Seoul, Korea
- Frequencies of Tradition, Kadist, San Francisco, USA
- 2021 Frequencies of Tradition,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orea
- Reclamation, New Rocks, Stray Dogs, Birds, and Acoustics of the Garden,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orea
- 2020 Frequencies of Tradition, Guangdong Times Museum, Guangzhou, China
- The Imagination of Time, Yebisu International Festival for Art & Alternative Visions, Tokyo Photographic Art Museum, Tokyo, Japan
- Museum for All, Museum for Dog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 Performance/Documentation/Presentation, Lunds Konsthall, Lund, Sweden
- 2019 Chroniclers, Outside of Time,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Busan, Korea
- History Has Failed Us, but No Matter, Venice Biennale 2019, Korean Pavilion, Venice, Italy
- 2018 #Art#Commons#NamJunePaik, Nam June Paik Art Center, Youngin, Korea
- Collection Highlights: Synchronic Moment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 2017 Reenacting history_Collective Actions and Everyday Gesture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 Irony & Idealism,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 8 works, Collections of the Artists, Audio Visual Pavilion, Seoul, Korea
- Neo Geography I, Centre d'art Neuchâtel, Neuchâtel, Switzerland
- 2016 Wellknown Unknown, Kukje Gallery, Seoul, Korea
- 2015 All the World's Futures, 56th Venice Biennale, Venice, Italy
- Rhythmscape,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 2014 The Decisive Moments, Arko Arts Archive, Seoul, Korea
- Inventing Temperature, Korean Cultural Center, London, UK
- 2013 No Mountain High Enough, Audio Visual Pavilion, Seoul, Korea
- The song of slant rhymes, Kukje Gallery, Seoul, Korea
- Memorial Park, Nouvelle Vague, Palais de Tokyo, Paris, France
- PERFORMANCES**
- 2018 Orbital Studie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 2013 Dimensions Variable, Songwon Art Center, Festival Bo:m, Seoul, Korea
- 2012 A Garden in Italy, Baek Sunghui & Jang Minho Theater, Festival Bo:m, Seoul, Korea
- 2010 Operational Play, Arko Art Theater, Festival Bo:m, Seoul, Korea



에르메스 재단

“우리의 행동은 우리를 정의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에르메스 재단의 다양한 활동들은 이 기본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르메스 재단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재단은 기술과 노하우의 전수, 창작활동 및 예술, 환경 보존, 사회연대의 영역에서, 내일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이들을 후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획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심에서 공유지식을 개발하고, 공익을 위한 과정을 활성화하며, 인도주의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재단의 근본적인 취지를 반영합니다. 에르메스 재단은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올리비에 푸르니에가 재단 이사장을, 로랑 페주가 재단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FONDATIONENTREPRISEHERMES.ORG
#FondationHermès #에르메스재단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President: Olivier Fournier
Director: Laurent Pejoux
Head of Communications: Maxime Gasnier
Head of Visual Arts & Craftsmanship Projects: Julie Arnaud

HERMÈS KOREA LIMITED

Managing Director: Han Sung Hun
Communication Director: Kim Ju Youn
Exhibition Manager: Yum Hyejo
Communication Coordinator: Cho Soo Min



아틀리에 에르메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살의 한 형식으로서의 예술”을 제안하는 아티스트의 창작 열정에 동참하며, 이들의 실험적이고 역동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현대미술을 위한 전시 공간입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국제 현대미술 현장과 보다 전문적이고 밀도 높은 교류 활동을 도모하며, 국내외 아티스트에게 높은 수준의 창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한층 더 역동적이고 풍요로운 한국 현대미술 현장을 만드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현대미술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기반으로, 현 예술계의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의미 있는 미학적 비평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적극 수용하며, 장르의 구분 없이 모든 형태의 예술 창작 활동을 포함합니다.

2008년 에르메스 재단의 발족과 더불어 에르메스의 후원 활동은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현재 서울의 아틀리에 에르메스를 포함 브뤼셀과 도쿄에 위치한 전시 공간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5길 7, B1F
T. 02 3015 3248
F. 02 545 1224
관람 시간: 오전 11시-오후7시
매주 수요일 및 설 연휴
(1월 1일, 22일, 23일) 휴관

MAISONHERMESDOSANPARK.HERMES.COM
#AtelierHermès #아틀리에에르메스

ATELIER HERMÈS

The Atelier Hermès is an exhibition space for contemporary art that supports the passion of artists who allude “Art as an engaging part of life,” and presents their experimental and dynamic aspect of the creation.

The Atelier Hermès aims at establishing a dynamic and prosperous contemporary art scene in Korea through intensified exchanges with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scenes and offering high standard of production environment to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art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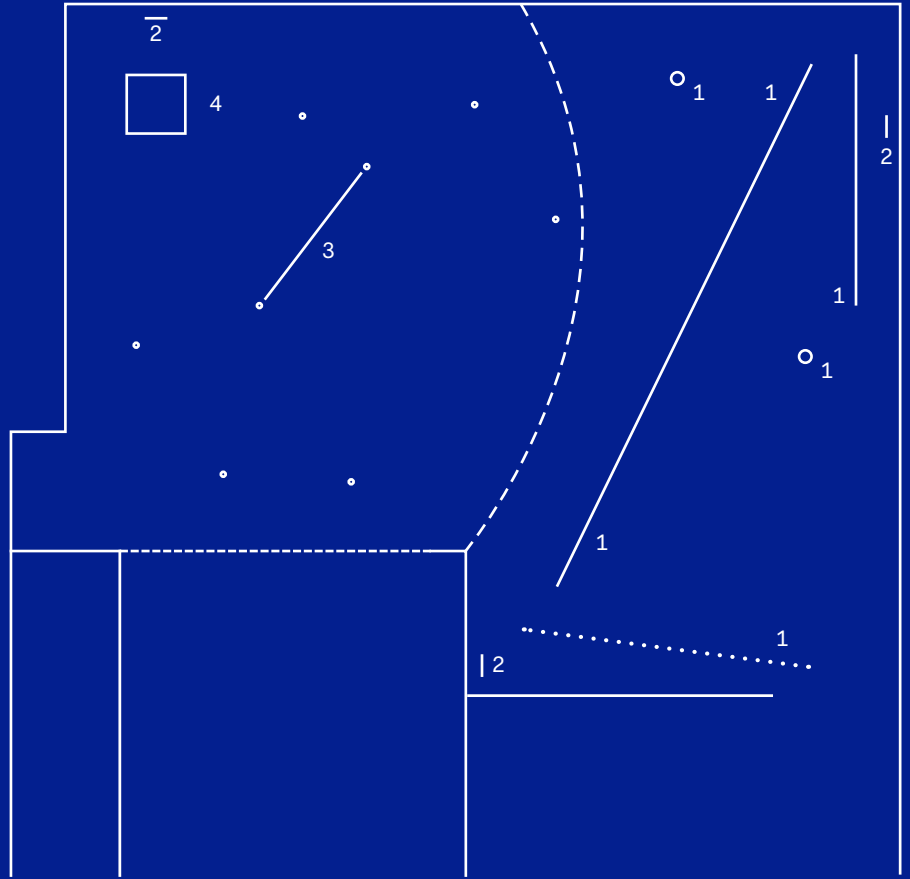
The Atelier Hermès provides aesthetic criticism on current issues and relies on singular and critical value of contemporary art, embracing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contemporary art, emphasizes artistic creation in all form of expression and media.

With the commencement of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in 2008, Hermès had added a new dimension to its policy which has become the vehicle for the development of its patronage activity through the Atelier Hermès and other art spaces in Brussels (La Verrière) and Tokyo (Le Forum).

MAISON HERMÈS DOSAN PARK
B1F, 7, Dosan-daero 45-gil,
Gangnam-gu, Seoul, Korea
T. +82 2 3015 3248
F. +82 2 545 1224
Opening hours: 11am-7pm
Closed on Wednesdays and holidays
(January 1, 22 & 23)

ATELIER HERMÈS

Artistic Director: Ahn Soyeon
Graphic Designer: Shin Shin
Translator: Lee Soojin
Exhibition Photographer: Kim Sangtae



1 코다
 알루미늄 파이프, 황동 파이프,
 에어블로어, 에어컴프레서,
 진동모터, 튜브, 레코더
 마우스피스, 플루트, 호른,
 트럼펫, 가변크기
Coda
 Aluminum pipe, brass pipe,
 air blower, air compressor,
 electronic motors, tube,
 recorder mouthpiece,
 trumpet, flute, horn,
 dimensions variable, 2022

2 창문-꿈
 백동판에 부식액
Window-Dream
 Corrosion solutions on
 nickel, 39 x 50cm, 2022

3 가브리엘
 단채널 비디오, 6채널 사운드,
 20분 4초, 반복 재생
Gabriel
 single channel video, 6
 channel sound, 20min
 4sec, loop, 2022

4 새로운 사원
 유토, 천, 금박지, 가변크기
A New Temple
 Clay mixed with oil, cloth,
 gold foil, dimensions
 variable, 2022